

<p>조민석 (Minsuk Cho, MC):</p>	<p>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석입니다. 저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같지 않지만 co-jury로서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심사위원이신 Anthony Fontenot 교수께서 지금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함께 라이브로 참여하고 계십니다.</p> <p>저희 올해 주제는 이미 발표가 났죠. 벌써 한 석 달이 넘은 거 같은데, <i>Architecture in a Precarious World</i>, <위태로운 세계의 건축>으로 번역이 되는 조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먼저 1차로 주제설명회 겸 Anthony 교수님과 제가 함께 올렸던 유튜브 자료가 있습니다.</p> <p>1차 주제설명회: https://youtu.be/XeBxydWmxVk</p> <p>전통적으로 인터내셔널 컴페티션이라 폭넓은 지역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영으로 자료가 나갈거고요.</p> <p>오늘 2차 주제 발표는 지금 Anthony Fontenot 선생께서 밤늦은 시간인데, 코스타리카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Anthony Fontenot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둘이 만들었던 주제글을 어떻게 보면 부연하는 한 15분 정도의 렉처를 하실겁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듣고 계실 한국 분들을 위해서 공간 건축가로 일하고 계시는 백승철씨가 순차통역을 해주실겁니다. 통역까지 하면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거고요</p> <p>Anthony Fontenot, I think you can please go ahead and make your presentation, which I believe you didn't need any visuals, right? So, it's just going to be you and the interpreter, Seung Chul, and that will be the talk. Please go back and forth, consecutively. So, thank you very much, Anthony for joining.</p>
<p>Anthony Fontenot (AF):</p>	<p>Great. First, I'd like to thank the people at Space Group for thi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urrent competition.</p>
<p>Anthony Fontenot (AF):</p>	<p>The emerging paradigm of the 21st century is defined by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fragility. Over the past few decades this crisis has become intensified, giving rise to a world of extreme precariousness. These changes are marked by income inequality and the devastating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sea level rise. This is the context in which "Architecture in a precarious world" is conceived. This crisis demands radical forms of strategic thinking, imagination, and action.</p> <p><i>(영상에는 들리지 않는 부분이지만 현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i></p>
<p>MC:</p>	<p>We just switched interpreters – Lee, Choong Hun (이충헌) – who may be better served for this. Sorry about that. OK.</p>

<p>이충헌(Lee, Choong Hun, CH):</p>	<p>일단 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광범위하지만 기후나 사회,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위태로운 건축> 주제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p> <p>+ 21 세기의 새로운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 취약성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극도로 위태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불평등,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에 의해 더 두드러집니다. <위태로운 세계의 건축>을 구상하게 된 맥락이며, 이 위기는 급진적인 형태의 전략적 사고, 상상력, 행동을 요구합니다.</p>
<p>AF:</p>	<p>OK. Thank you. How might architecture be explored as a relevant tool for addressing such a precarious world? Can design respond to these overwhelming challenges?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we hope will be explored in the design proposals.</p>
<p>CH:</p>	<p>건축이 이런 어려운 주제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대응방식을 공모전에서 어떻게 표현해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p> <p>+ 위태로운 세계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서 건축을 어떻게 탐구할 수 있는지, 디자인이 이러한 압도적인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한 흔적을 제안서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p>
<p>AF:</p>	<p>This competition is a call to reexamine the everyday world around us and to identify fragile sites, by which we mean precarious social and ecological conditions, that urgently need to be addressed.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explore alternative approaches to <i>resilience through design</i>. This is an appeal to imagine new forms of commons and to set forth a bold new path for future architects.</p>
<p>CH:</p>	<p>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공간들을 대할 때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건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건축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p> <p>+ 이 공모전을 통해 주변과 일상을 재검토하고, 위태로운 사회적, 생태적 조건들을 급히 해결해야하는 취약한 장소를 찾길 바랍니다. 또한, 참가자가 <i>디자인을 통한 회복탄력성</i>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을 찾길 바라며, 미래의 건축가로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상상하고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p>
<p>AF:</p>	<p>Precarious is defined as "dependent on circumstances beyond one's control;</p>

	<p>uncertain; insecure,” as well as “characterized by a lack of security or stability that threatens with danger.” The idea of precariousness is well established in the work of the economist Guy Standing who coined the term the “precarariat” (or the precarious proletariat) to describe the urgent problems of the unstable conditions of a new class of workers lacking predictability and security.</p>
CH:	<p>그 위태롭다는 단어는 지금 여러 상황에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뭔가 정해지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제학자 Guy Standing 이라는 분이 설명하기로는 그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그런 확실하지 않고, 앞으로 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 ‘위태로움’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존하거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라는 의미와 ‘위험으로 위협되는 상황에서 보안 혹은 안정성의 결여’ 라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위태로움’이라는 개념은 예측가능성과 보호가 결여된 새로운 노동자 계층의 긴급한 문제와 불안정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Precariat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라는 용어를 만든 경제학자 Guy Standing 의 연구에서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p>
AF:	<p>Likewise, the sociologist Arne Kalleberg argues that “The period since the 1970s has been characterized by considerable uncertainty, instability, and insecurity in industrial societies.”</p>
CH:	<p>사회학자 어떤 분은 197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p> <p>+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학자 Arne Kalleberg 는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는 상당한 불확실성, 불안정성, 위험함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말했습니다.</p>
AF:	<p>In terms of labor, he argues that these changes resulted in the greater use of, what he calls, “precarious work” – which he defined as a condition in which “employees bear more risks and receive limited social benefits and statutory entitlements.”</p>
CH:	<p>노동시장에 있어서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다시 재정해야 할지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동의 측면에서 “위태로운 일”이라고 부르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위태로운 일”을 “노동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p>

	감수하고 제한된 사회적 혜택과 법적 권리를 받는 조건"이라고 정의합니다.
AF:	He continues, "The anxiety, anger, anomie, and alienation produced by this widespread uncertainty, insecurity, and inequality have prompted social movements such as Occupy Wall Street. In Spain it has resulted in a movement referred to as "los indignados," or "the outraged."
CH:	이런 정해지지 않은 상황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단체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그런 행위들이 타임스퀘어나 이런 광장에서도 벌어지고 합니다. + 그는 이어서 "이 널리 퍼진 불확실성, 불안정성과 불평등함이 낳은 불안, 분노, 아노미, 소외감이 '월스트리트 시위', 스페인의 '로스 인디그나도스(분노한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운동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AF:	Similar outrage drives the work of <i>Extinction Rebellion</i> ,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ovement aimed at persuading governments to support ecosystem resilience to stop mass extinction and to avert, what they describe as, "the risk of social and ecological collapse."
CH: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적인 몰락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 비슷한 분노로 정부가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도와 멸종을 막고, '사회적, 생태계적 붕괴 위기'를 방지할 것을 주장하는 국제적인 환경 운동 '멸종 저항(XR)'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F:	While these various reactions to precariousness is well established in other fields, i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similar concerns are seldom expressed.
CH: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축과 도시 계획 쪽에서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위태로움에 대한 대응이 다른 분야에서는 잘 확립되고 있는데, 건축과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비슷한 우려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AF:	Using the framework developed in other disciplines as a point of departure to understand the early 21 st century, our goal is to inspire new ways of comprehending precariousness as it manifests itself in the built environment.
CH:	21 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학문에서의 이런 논의들이 건축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서 구축된 환경에서도 이런 주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p>+ 21 세기 초라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출발점으로 삼아, 현재 구축된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위태로움을 이해해야 합니다.</p>
AF:	We are interested in exploring the various forces that interrupt, intensify, and manipulate ecological and urban processes resulting in fragile landscapes and urban spaces.
CH:	<p>여러 가지 영향들을 포함해서 구축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위태롭다는 단어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건축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p> <p>+ 취약한 자연과 도시 공간을 초래하는 생태적, 도시적 환경을 방해 또는 강화하여 조작하는 여러가지 힘을 탐구해보기를 바랍니다.</p>
AF:	The goal is to assess and respond to these conditions while speculating on how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might best be employed as a means of moving forward.
CH:	<p>그래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건축으로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과로 도출될 것인지를 보고자 합니다.</p> <p>+ 목표는 이러한 상황을 가늠하고, 대응하면서 건축과 도시 계획이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써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모색해보는 것입니다.</p>
AF:	Some critics seem skeptical that "green buildings" will have much of an impact on changing the current paradigm.
CH:	<p>친환경 건물이라는 주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구축된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키워드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p> <p>+ 일부 비평가들은 '친환경 건물'이 현재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회의적입니다.</p>
AF:	In an essay titled "Architecture and the Death of Carbon Modernity," Elisa Iturbe argues "Regardless of increases in energy efficiency and reductions in the carbon emissions of individual buildings, the built environment as we know it will be fundamentally unable to supplant the current energy paradigm or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as long as its core is constituted by carbon form."

<p>CH:</p>	<p>건축 자체가 개개인의 건축물이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근본적인 카본 내추럴을 표방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 방향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p> <p>Elisa Iturbe 는 그녀의 에세이 'Architecture and the Death of Carbon Modernity'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증가와 개별 건물의 탄소 배출량 감소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된 환경은 그 핵심인 carbon form 으로 구성되고 있는 한, 현재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체하거나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p>
<p>AF:</p>	<p>She continues, "Any proposal for the future must first deal with overcoming this cultural and architectural legacy. To do so,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patial expression of carbon energy – which she refers to as carbon form – as a site of intervention, which in turn reveals that architecture has a significant role in defining the outcome of this increasingly uncertain phase of human and planetary history."</p>
<p>CH:</p>	<p>지구의 역사를 비춰볼 때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carbon form 이라고 표현하는 그 core value 가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단어로는 아직까지 담기는 어렵습니다.</p> <p>+</p> <p>그녀는 또한, "미래를 위한 어떤 제안이라도 이러한 문화적, 건축적 유산을 먼저 극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표현된 탄소 에너지(carbon form)를 개입의 현장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건축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인류와 지구 역사 국면에서 그 결과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p>
<p>AF"</p>	<p>Precariousness exists both in the <i>ecological</i> structure of <i>territories</i> and cities. Most cities of the 20th century stand as extreme expressions of carbon form, manifesting "energy intensive ways of life."</p>
<p>CH:</p>	<p>Carbon Form 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태 환경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건축적인 환경에서도 발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p> <p>+</p> <p>위태로움은 땅과 도시의 생태적 구조 둘 다에 존재합니다. 20 세기 대부분의 도시들은 '에너지 집약적인 삶의 방식'을 표방하면서 극단적인 carbon form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p>
<p>AF:</p>	<p>Therefore, how might we engage such outmoded territories and introduce new post-carbon forms of design?</p>
<p>CH:</p>	<p>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post-carbon form 의 다음 방향은</p>

	<p>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낡은 땅에 관여하고 새로운 post-carbon form 의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p>
AF:	As a STRATEGY for developing design interventions, we invite participants to explore three concepts: LOCAL AND HYPER-SPECIFIC, NON-ANTHROPOCENTRIC, AND ABSENCE.
CH:	<p>이런 설정을 통해서 저희는 세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p> <p>+ 디자인 개입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우리는 참가자들이 지역적/초특정적, 비인간중심적, 그리고 부재라는 세 가지 개념을 탐구해보길 권합니다.</p>
AF:	We maintain that a radical engagement with the various LOCAL aspects of a place is key. We encourage a HYPER-SPECIFIC approach to local conditions, issues, and knowledge as a challenge to the persistent forces of homogenization.
CH:	I think you can continue with the last point, and I will summarize all three points.
AF:	It is also a way of identifying and engaging with the various social and ecological forces at work in a specific context.
CH:	<p>LOCAL 이라는 주제와 HYPER-SPECIFIC 이라는 주제, 비인간중심적인 그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번 공모전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p> <p>+ 우리는 한 장소를 다양한 지역적 측면에서 급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동질화에 대한 도전으로 지역적 조건, 문제 및 지식에 대한 초특정적인 접근을 권합니다.</p>
AF:	Working with the dynamic aspects of the ecological and urban context is a way of acknowledging multiple agents and the various interconnected networks that define a place. It is the opposite of tabula rasa. The intervention should engage these LOCAL and HYPER-SPECIFIC condition as much as possible in the design.
CH:	<p>전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tabula rasa' 라는 비어 있는 대지 대신에 굉장히 여러가지 컨디션들을 컨텍스트에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p> <p>+ 생태적, 도시적 맥락의 역동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은 여러 주체들을 인정하고 한 장소를 정의하는 다양하게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p>

	'tabula rasa'와는 반대됩니다. 디자인 개입에는 가능한 많은 지역적/초특정적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AF:	The NON-ANTHROPOCENTRIC view maintains that other subjects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equal significance as human beings. We urge you to consider various NON-ANTHROPOCENTRIC approaches that give ecosystems prominence in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design intervention.
CH:	비인간중심적인 접근을 통해서 건축물들이 생태환경과 어떻게 서로 인터렉션 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 비인간중심적인 관점은 인간이 아닌 주체들도 인간과 동등한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개입의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생태계를 두드러지게 하는 다양한 비인간중심적 접근 방식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AF:	The world is defined by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agents, including animals, plants, landscapes, and other subjects. Successfully working with these agents require careful observation and nurturing. To fully investigate their design implications, we encourage new ways of connecting ecology, landscape, and the city.
CH:	세상은 여러가지 에이전트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인간과 비인간, 인간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을 다양한 고려를 통해서 설계에 담아냈으면 합니다. + 세계는 인간과 동물, 식물, 자연환경 등 비인간 주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정의됩니다. 비인간 주체들과 성공적으로 작업하려면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주체들에 함의된 디자인 요소를 충분히 조사하기 위해, 생태계, 자연 그리고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장려합니다.
AF:	This approach suggests a new method, what might be called non-anthropocentric design, which would consider human input as "a single factor in a larger system of rel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alike." This method reveals new opportunities for designing new kinds of spaces and experiences involving a far greater number of agents in the design process.
CH:	비인간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 어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접근법에서 제안하는 비인간중심적 디자인은 인간의 개입을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라는 더 큰 체계에 대한 단일 요소'로 간주합니다. 이 방법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훨씬 더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게 되어, 새로운 종류의 공간과 경험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AF:	But to advance this idea, we must create <i>new</i> narratives, <i>new</i> ways of seeing ourselves in relationship to other species. How might new communities of human and nonhuman, including plants and animals, be organized and what are the qualities of these new types of spaces?
CH:	<p>지금까지 너무 인간중심적인 관계들에 치중해서 건축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의 군집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p> <p>+ 그러나 이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종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성된 새로운 커뮤니티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며 이 새로운 유형의 공간은 어떤 특징을 가질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p>
AF:	The concept of zoopolis involves granting animals citizenship. This idea has been used to rethink the differences between a city created by people (polis) and the animal world (zoo) and seeks new ways of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 and animals in urban environments.
CH:	<p>현대 사회에서 동물 시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물원 zoo 폴리스” 라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p> <p>+ Zoopolis (동물 정치 공동체)의 개념은 동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만든 도시(polis)와 동물들의 세계(zoo) 사이의 차이점을 재고하고 도시 환경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p>
AF:	More recently, the idea that ecological environments should have rights has emerged. Should rivers and waterways have rights? In 2017 the Whanganui River in New Zealand became the first river in the world to be granted the legal status of a person. Since this landmark case, the Ganges and Yamuna Rivers in India and all rivers in Bangladesh also received legal rights.
CH:	<p>과연 강이나 물길 같은 것들도 권리가 있을까요? 최근에 인도의 갠지스강은 세계에서 최초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권리를 부여받은 최초의 케이스가 되었습니다.</p> <p>+ 더 최근에는, 생태 환경이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이나 물길에도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2017년, 뉴질랜드의 왕가누이 강은 세계 최초로 인간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케이스</p>

	뒤로, 인도의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 방글라데시의 모든 강들 또한 법적 권리를 받았습니다.
AF:	This competition is an invitation to explore what some have described as a “multi-species theory of the city.” Non-anthropocentric design must grapple with the coexistence of multiple nonhuman agents in conceptualizing new territories of cohabitation and resilience in the formation of multi-species communities.
CH:	<p>다 인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 종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어떻게 건축을 통해서 묻고 그 디자인 환경에 그런 이슈들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p> <p>+ 이 공모전을 통해 일각에서 ‘multi-species theory of the city’라고 묘사한 것들을 탐구해보길 바랍니다. 비인간중심적 디자인은 공동 생활을 위한 새로운 땅을 개념화하고, 회복탄력성이 있는 다종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비인간 주체들과 공존하기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p>
AF:	The goal of this approach is to explore ideas of a “non-anthropocentric city,” as a “place for the emergence of new functions and urban forms,” which suggest a condition in which animals, plants, landscapes, and people mutually benefit from the coexistence of one another.
CH:	<p>비인간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 도시에서 어떻게 다양한 에이전트들, 동물들, 식물들, 아니면 외부 환경들이 서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 이 접근방식의 목표는 ‘새로운 기능과 도시 형태의 출현을 위한 장소’로서 ‘비인간중심적 도시’라는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고, 이 도시는 동물, 식물, 자연, 인간이 서로 공존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습니다.</p>
AF:	The third and final concept – ABSENCE.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explore the idea of ABSENCE or the strategic removal of certain parts of the city. The demise of one thing may instigate the rise of a new thing.
CH:	<p>마지막 전략으로 비워짐(부재)이라는 전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 세번째이자 마지막 개념은 부재입니다. 부재, 혹은 전략적으로 도시에서 어떤 부분을 제거해보세요. 하나의 소멸은 다른 것의 출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p>
AF:	One obvious example of this is how the strategic removal of a massive, elevated freeway in downtown Seoul exposed a natural stream and allowed it to become a vital part of the city. The Cheonggyecheon stream project

	blurs the distinction between city and landscape and provides a space for multiple species. What other types of interventions might occur in the removal of outdated carbon intensive infrastructure of the 20 th century that could open up new territories for exploring how we might live in the 21 st century?
CH:	<p>청계천에 사례를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비워냄으로써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주제의 마지막 전략이 될 것입니다.</p> <p>+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고가도로를 전략적으로 제거해 자연 하천을 노출시켜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한 청계천이 명백한 부재의 사례입니다. 청계천 프로젝트는 도시와 자연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해 다양한 종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21 세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해 20 세기의 낡고 탄소집약적인 기반시설을 제거하면 어떤 유형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p>
AF:	Modern urban form has too often been inseparable from the fossil economy. New investigations into pre-carbon and post-carbon environments are needed to move beyond our present impasse. Personal vehicles are a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and are responsible for nearly one-fifth of all emissions in the US, for example.
CH:	<p>현대의 도시는 석유를 활용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PRE-CARBON 과 POST-CARBON 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p> <p>+ 현대의 도시 형태를 화석 연료 경제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pre-carbon 환경과 post-carbon 환경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합니다.</p>
AF:	One might develop a scenario in which private vehicles disappear. What would become of all the parking lots and garages, for example? Likewise, what might happen if the private house would disappear. What types of new dwellings might emerge to replace it? Another scenario might be to conceive of the absence of stable ground in the city. What might happen to urban areas when water rises to a meter or more in floodplains and coastal cities?
CH:	<p>만약에 개인의 자동차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도시에 남아 있는 주차장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그리고 또 만약에 개인의 주택들이 없어진다면 그 주택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물이 1 미티라도 수심이 올라간다면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p> <p>+ </p>

	<p>누군가는 자가용이 사라졌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주차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하게, 사유 주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가 나타날까요? 도시의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천 혹은 해안도시에서 물이 1미터 이상 상승할 때 도시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p>
<p>AF:</p>	<p>Another way to think about ABSENCE is in terms of removing limitations. The absence of control or restrictions placed upon certain resources, be it bodies of water, natural habitat, open green areas, forests, or seas, opens up ways of imagining new forms of commons. Consequently, ABSENCE may be one of the most critical tools for reimagining urban landscapes of the future.</p>
<p>CH:</p>	<p>비워짐이라는 전략은 단지 어떤 구조물을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약을 없애는 것으로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p> <p>+ 부재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은 제약을 없애보는것입니다. 물, 자연 서식지, 공공 녹지, 숲 혹은 바다 등 특정 자원에 대한 통제나 제한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재는 미래 도시 경관을 재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p>
<p>AF:</p>	<p>We hope that these three strategies, along with the methods outlined in the brief, will encourage architects to explore new approaches to design that can move beyond the current paradigm and open up the possibility of what architecture might become. Thank you.</p>
<p>CH:</p>	<p>지금까지 제안 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공모전 주제에 걸맞은 좋은 작품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p> <p>+ 저희는 이 세가지 전략과 주제해설에 설명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건축가로서 현재의 새로운 디자인 접근법을 탐구하고 건축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p>
<p>MC:</p>	<p>Thank you, Anthony.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역을 맡아 주신 공간 이충헌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thony Fontenot 선생님의 thesis, 아주 illuminating 했구요.</p> <p>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눈건데, 저도 사실은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까하다, 실은 Anthony Fontenot 선생님의 제안으로 관련 작업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p> <p>팬데믹 때문에 작년 2월에 LA의 Sci-Arc에서 마지막 강의를 한 이후,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그 때 Anthony 선생님께서 친구로서 오셔서 support 해주고, 그 강의를 뭔가 관련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들어보니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p>

학생건축상이기 때문에 1 차 주제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건축가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은, 기다리고 있다가 수동적으로 백마 탄 왕자님처럼 건축주가 나타나면 form-giving 을 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하게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여러분의 어떤 근본적인 것, 건축가 역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기가 선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하나 첨가하자면, Anthony 선생님이 이론가로서 쓴 "Non Design"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Architecture, Liberalism, and the Market", "건축,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카고 프레스에서 올해 책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미리 주문해 놓아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 Anthony 선생님께서 밑그림을 그려주셨다면, 마지막에 brief 에서 저희가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4 가지 단계, 학생들한테 저희가 요구하는 무엇이 위태로운 상태인가에 대해 먼저, 본인이 관심 있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돌보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건축가로서 어떻게 관여할까? 이게 너무 건축적이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협업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코로나 상황이니 직접 나서서 뭔가 협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협력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의 역할이나 위치, 그게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뭔가 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건축가 시계루 반처럼 재난현장에 제 발로 뛰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돌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현장이 어디냐'는 질문이 따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수동적인 건축가의 입장이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있는 분야들에 뛰어 들 수 있는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30 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제 실무경력이 벌써 23 년째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요. 저도 완전히 수동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제가 볼 때 80~90%에 가까운 일들은 우리가 말하는 주제하고는 거의 반대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 Carbon-form 이라든지, 엄청난 소비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 산림청에서 어마어마하게 소비적인 산림 녹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무를 하더라도 나름 고민하고, 관여하고, 관련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맹목적인 성장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사무실은 커질 것이고 불어납니다. 이런 거품 다 걷어내고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겠다는 것은 굉장한 단호함을 필요로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를 Anthony 와 보고 주제설명회와 맞겠다 싶었던 것은 상업적이고,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긴 하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care 하는 것들에 관여해왔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 상징적인 도시 공간들이 비워지고, 무슨 디스토피아 영화의 장면이 아닌, 재난이 일상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십년 동안 계속 경고를 받고 있어 온 상황들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지난 1년 반만에 비활성적인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서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려면 있어야 할 자연과 도시의 만남이 아닌, 있으면 안 되는 만남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갑자기 도시 한복판에, 그런가 하면 바다 한복판에 새로운 대륙 사이즈의 이런 쓰레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Anthony Fontenot 선생님은 학자라서 별로 외부 활동을 안하셨는데, 코로나로 하이킹을 즐기다가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피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refugee, 난민들이 있지만, Anthony 선생님도 난민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Anthony here's a surprise for you. 지금 코스타리카에서 집을 한 채를 지으셨습니다. Casa Fontenot 라고.

“이런 종류의 refugee 는 어떨까? 내가 약간 colonial 한 태도 아닌가?” 하하.. 하지만, 언젠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마지막 '방법'은 물론, Anthony 선생님께서

부연해주신 세가지 전략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가지 장소, 현장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우려도 있고, 물론 국제기구에 참여하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도 우린 열려 있지만, 제가 몇 십 년 실무해 온 건축가로서 관여한 방법들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지요. 유기체라고 일컫고, 그렇다면 이 생태계 안에는 자연과 문화, 즉 도시 자연생태계가 있을 것이고, 도시 문화생태계, 인간중심적인 태도로 만들어진 게 도시의 규율(discipline)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굉장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가 사라지곤 하는 문화들, 그것들도 역시 우리가 돌봐야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게 어떤 것들이었냐면요, 저는 영화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중적인 영화에 저는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로 불과 21 년 전에 <플란다스의 개>는 6 만 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문화 생태계 면에서 한국 영화를 볼 때, 봉준호 감독의 이런 괄목한 성장도 있지만, 20 년 전에 <플란다스의 개>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는 생태계는 지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중, 적성상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공적 영역에서 돌봄의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도 달라졌죠. 저는 어린 시절 종로에 가면 단성사, 피카디리, 대한극장, 이런 대단한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넷플릭스로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단순하게 문화적으로 한 개인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정말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겠죠.

저는 매스스터디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김광수 선생님과 2002 년 월드컵 때,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충무로에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런 옛날 극장들이 지금은 사라진 극장들이죠. 이 그래프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68 년에 일년 평균 6 번 가까이 극장을 갔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했고, 2000 년대부터 갑자기 멀티플렉스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상업 영화. 이제 넷플릭스 나오는 게 7, 8 년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인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계 안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김광수 선생님하고 했던 게, 이 통로를 독립 영화, 협회와 같이 운영해서 실제로 어떤 살아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원래 관에서는 별 생각 없이 전시, 갤러리 같은 것만 하자고

제안했지만, 지하 길바닥이나 얼마든지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소규모 영화제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죠. 좀 전에 보이는 것은 디지털 수업을 하는 곳인데, 무슨 석기시대 컴퓨터 같은 게 잠깐 나왔었죠?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같은 분들이 주창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 시절에 7~8 년 된 것 같은데, 시네마테크를 만들어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patron, 돈 많은 고상한 분들이 돌봐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유럽 같은 곳들은 다 관, 국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건축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그때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서울극장에서 시 재정을 가지고 셋 방 살듯이 시네마테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적인 생태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일이고 지명 건축 공모전을 통해 저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 총괄 건축가께서 좋은 결정을 했던 게 외곽으로 나가면 굉장히 넓은 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등포나 그런 곳. 하지만 충무로가 굉장히 상징성 있고, 여기는 그래도 몇 개나마 살아 남아 있는 어떤 문화적인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지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유형의 극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것은 이 장면이죠. 건축적인 아이디어인거죠. 굉장히 익스트림한데, 이 자본화된 중심지, 지금 힙지로 한복판에서 70 미터 길이의 지하철 통로 안에서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거의 90 미터 높이의 수직적인 공간이 또 끼어 들어가서 이런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살려보려 노력 중입니다.

건축가로서 사실은 건축을 넘어서서 많은 그 연대가 필요한 이런 일들로, 저희로서는 많은 의미가 있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문화 생태 이쪽에서 계속 관여를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졌을 때 모습입니다. 당선이 되고 보니, 이 안에 세 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아트시네마는 멋진 고전영화, 흑백영화, 70mm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인디스페이스는 한국 독립 영화를 제작하고 돌보는 곳이고, 미디어트는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의 관장님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대행해서 여러 부문의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형태 자체가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form-giver 라며 다양한 따로 또 같이, many-in-one 모델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며 굉장히 잘 받아들여졌으며, 지금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시 문화 생태계에서 Local 에 추가로 Hyper Specific 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좋은 예입니다. 그냥 local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동안 너무 이념화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local 은 착하고, 개량 한복 입은 분들이 있고, 저 편에는 신자유주의 global force 가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는 희생자이고 반대편에는 무지막지하게 다소 과도 단순화된 듯한 서사가 있었죠.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90 년대 초반 영화 시장개방을 하면서 대단한 감독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극장 안에 뱀을 풀어 놓기도 하고, 우리 영화가 말살된다고 걱정했는데, 사실 개방되고 대중 문화 여러 부분에서, 이를테면 BTS 요즘 빌보드 소식이 이제는 소식 같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 개방 후 굉장히 다른 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좀 더 크게, local 과 global 의 대립된 구도에서 좀 더 생산적인 것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념화된 Local 보다는 Hyper Specific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런 만화적인 상황, 이야기들로 보며 피상적으로 local, global 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은 우리가 사는, 거주의 문화입니다. 도시에서의 생활 문화라는 것인데, 이런 풍경은 많은 분들이 돌보고 싶었던 풍경입니다. 김기찬 선생님의 달동네와 골목길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건축 담론 안에서는 가장 낭만화된 것이죠. 그냥 돛자리만 덮어놓으면 소파가 되고, 여기가 나의 응접실이 되고, 여기서는 정말 순찰할 필요도 없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서 이런 꼬불꼬불한 골목길 안에 모두 다 행복해 보이는 시절입니다. 제 어린 시절도 그랬고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공부방에 되기도 하고, 배드민턴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주거 생태계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런 아파트들이 솟아오르는 거지요. 이게 한 10~11 층짜리였다가 갑자기 30~40 층으로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2 세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는 한국 땅이 70%가 산이기 때문에 산과 이 무지막지한 스트레치된 힐버자이머들이 공존하는 그런 굉장히 초현실적인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사라져 간 풍경은 일종의 nostalgia 로 건축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보존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북촌한옥마을이 지금은 이렇게 되었죠? 주거 환경으로써, 하나의 문화적인 주거

생태계로써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 버린 것이지만요. 어린 아이들은 온데간데없고, 인스타그램과 함께 거기에 이런 복장까지, 광풍처럼 북촌에서 시작했구요. 그리고 굉장히 global 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일종의 로맨티시즘이 fetish, 집착으로, 굉장히 병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굉장한 부를 가진 분들이 와인샵이나 아니면 트로피하우스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북촌이 그런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 한복판이 그렇고, 지금 20, 30 년 동안 어떤 하나의 변질된 문화 생태계로서 주거 환경으로 본다면 이런 현상이 이화마을까지 갔어요. 북촌이 너무 비싸고 살려면 엄두가 안나는 곳이 되다 보니 이런 곳으로까지 가고 있죠.

건축가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저는 사실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모른 척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뭐 산토리니 같다는 등,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 좀 안 했음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authentic 하게 살게 했으면 합니다.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백사마을 계획을 보고는 기대하는 점이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랑 같이 공존하는 여러 가지를 새로운 방식의 시도가 보여서요. 주변의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익숙하기도 하지만요.

여기도 보면 산토리니 같지 않아요? 단지 컬러풀한 버전이고요.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여기도 한복 부대들이 역시 나오는, 초토화된 상황입니다. 여기만 보셔도 부산의 이 마을하고, 김기찬씨의 사진, 여기가 아현동일겁니다. 너무 다른 환경이 되었고요. 이랬을 때 이것을 보존, 물론 이것이 껍데기라도 남아서 내용은 전혀 달라지더라도 어쨌든 문화 생태계로 저는 많은 학생들이 '재생' 이런 얘기하는 건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와인바 만들고, 젠트리피케이션하려고 하는 거데요.

제가 중국 학생들의 현상설계를 심사했는데, 거기서 이런 '지역적' 움직임이 이념화되어 좀 더 무시무시 하더라고요. 마치 중앙 명령이 하달된 듯, 방방곡곡에 인사동 같은 동네가 수백개가 동시에 '재생', 만들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물론 관광도 먹고 사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여기는 대전대 사이트인데, 대전대에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승효상선생님하고 600 명씩 1200 명의 기숙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굳이 달동네와 골목길을 대놓고 주제로 삼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사가 굉장히 심한 장소에서 달동네 형상을 띄면서 이런 테라스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원했던, 아파트가 사와 공이 양극화된 상태라면 달동네에서 여러가지 semi-private, semi-public 다양한 스펙트럼의 커뮤니티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구성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이 머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럿이 300 명까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자서 잘 수도 있고 단일 건물 안에 이런 다양한 공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골목이 자연스럽게 지형에서 나와, 똑바른 골목에 이런 포켓 골목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지그재그 골목이 생기고, 땅 모양 때문에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면서 신발 벗고 안방처럼, 아까 김기찬 선생님의 어린아이들처럼 신발 벗고 올라가, 여기는 골목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집처럼 여기 앉을 때도 있고, 빨래 널어놓고, 우산도 갖다 말려 놓고, 이쪽에 보면은 두 개 지그재그 공간과 똑바른 공간이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공간이 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낭만화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행위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짓는 건물에 이렇게 사라지지만 좋았던 도시 조직의 논리를 적용해서 건축화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전부터 일종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죠.

너무 대상화하는 건 전 무서워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를 좀 더 냉혹하게 바라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outsmart 할 수 있는지는, 전 이 어마어마한 연체동물과 상대할 자신이 없기도 해서요.

생태계로서의 주거의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하루 이틀 관심 가진 것은 아니고, 다음은 벌써 22년 전에 서울 리서치라는 것을 김광수 교수님과 할 때입니다. 내부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아래 공간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생겨나게 되는데, 그 때만해도 Public space 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이 있는 긴 공간을 갖게 된거죠.

저는 약간 리나 보 바르디(Lina Bo Bardi)의 MASP(São Paulo Museum of Art), 상파울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엄, 필로티가 한 백미터 쯤 길이가 되나 모르겠는데, 우발적으로 생긴 이 공간은 것은 몇 십 km 짜리 리나 보 바르디 같은 필로티가 생겼다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현상 설계하면서 이 현장을 가봤더니 이 하부 공간이 20년이 지나고는 정말로 Non-anthropocentric 이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잉어 같은 물고기들이 있고, 황새가 날아다니고, 제 표현으로는 '부르탈리스트 낙원'같은 곳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전제였던 현상설계였는데요, 지금 내부순환도로 떼어 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홍제천이 있구요. 이게 청년주택, SH 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중 하나입니다. 중요했던 것은 청년 주거 공간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뉴욕의 핫한 젊은 거리가 어디냐? 그러면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맨하탄, 아니면 뉴욕 브루클린 힙스터 동네도 너무 비싸졌습니다. 퀸스, 아스토리아, 우리 교포들 모여살던 플러싱 이러다가 저 필라델피아 아니면 더 멀리 미시간

이런 데가 요즘 가장 힙하다 그러거든요. 서울도 지금 비슷해지고 있어요. 서울이 사람 사는 곳으로 보면 서울 자체, 특별시가 인구 1100 만인 때가 90 년대 말이었습니다. 지금 1000 만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 전체 인구는 감소됐죠. 서울 인구는 감소하는데 서울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지금 2,500 만 2,400 만 이렇습니다. 결국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이를 위해 GTX 이렇게 생기지만, 이것도 carbon, 진짜 돈 쓰기 위해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건설산업입니다. 온 국토를 초토화해서 1 호 터널부터 시작해서, 별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해로 내려가면 미친 듯이 섬이라는 섬은 다리로 다 연결해 가지고 자동차로 꿰고 다니는... 진짜 끔찍하거든요. 여러분도 즐겁하고 제발 그런 일들은 좀 파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어쨌든 여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연희동이란 곳이 제가 대학교를 거기 나와서 아는데, 학교로써 젊은이들이 살기엔 문화적으로 너무 힙하고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홍대나 그런 곳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고, 저쪽에는 연희동, 연남동, 또 그 음식점 좋은 데가 많은데, 부지가 약간 사각지대 같이 남은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가 원래 여기에 물, 한강의 지류로써 1 년에 한 번 정도 폭우가 생기면 여기 물을 잠깐 저장하는 저수지 같은 빗물펌프장을 짓기 위한 서울 시의 땅인 거죠. 1 년에 평균적으로 한 6 시간 정도만 쓰는 이런 시설을 언젠가 지을 땅으로 그냥 놔 둔 일종의 traffic island 같은 그런 곳이죠. 지금 보면 별로 여기서 살 생각이 안 드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내부순환도로와 여기 모래내로 내려가서 연대 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 앞에 공동 공원이 있고, 산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1 층은 거의 도시기반시설이에요. 일부 남은 땅에다가 식당, 남은 곳엔 Food Lab,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동네가 식당 창업을 위한 실리콘밸리로, 팝업 키친을 한다든지, 요식 산업을 위한 좋은 문화적 생태계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쪽 남향이 집 200 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의 큐브 공간이죠. 말하자면, 젊은이들의 일종의 기숙사같이 대학 졸업하고 최대 한 8 년 정도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곳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공공주택, 공공 sector 에서 공급한 집들이 매력이 없고, 아파트에 다 광분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필요하고, 일종에 도시의 중심에서 incubating 하는 공간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은 층층이 계단으로 연결되면서 각 층에 빨래방이나 공동키친들이 있고, 꼭대기의 도서관에 달하고요. 이게 남쪽의 모습이고, 반대쪽 북쪽은 내부 순환도로를 면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하부에 빗물펌프장이 있고, 체육관도 있고, 추가로 수영장도 저희가 제안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이 기능도 (주거 생태계의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영장은 굉장히 양극화입니다. 5,000 원짜리 공공의 수영장이 있고, 그리고 회장님들 1 억 회원권으로 가는 수영장이 있는 거고요. 저는 잘 살고, 좀 제대로 복지 잘 하는 나라, 옛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어진 멋진 수영장을 가 봤는데, 더 잘 사는 우리 나라는 이런 Civic 혜택을 아직 못 누려본 것 같아 아쉽거든요. 올 겨울부터 공사 시작할 거구요. 도서관도 있고요. 이 시설들은 거주하는 200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생태계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죠. 앞에서도 올라가고, 뒤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연결되는, 이것도 단일 건물이면서, 경사지에 지은게 아니지만 달동네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영장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는데, 삶의 환경으로써 위태로운 도심에 젊은이들이 많이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확실히 건축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길어지고 있는데 Non-Anthropocentric, 비-인간중심적, 세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한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보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직접 앉아서 그린 거죠. 이상화된 풍경을 중국풍으로 상상해 그린 그림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장소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한양의 진경이었던 거죠. 여기는 동작이네요. 현 동작역 주변에 약간 이런 풍경이 남아있죠. 고가도로 같은 게 꽂혀 있지만요. 이 그림이 제일 쇼킹하죠. 선유도예요. 지금 선유도공원 아시죠? 이거 전 항상 볼 때마다 항상 경악하는데 이게 옛날 한강 풍경이라는데 브라질의 리우처럼 생소하죠. 거긴 바다이긴 하지만 기암괴석의 절벽과 너무너무 멋진 풍경의 도시인데 서울도 이렇게 드라마틱했다가 점점 평평해져 온 거죠.

이 곳에서 제가 수영하던 어려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마포나루고요. 이런 기억에 홍수가 같이 있었던 거고, 치수만을 위해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한 것을 다 부셔서 평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 곳은 지금 새빛동동섬 앞인데, 뭐 이런 분수 보려고 바글바글 모여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애뜻하면서도 놀라운 이것도 일종의 '도시적 resilience'라 봐야 하나 싶고요.

그런데 밤섬 프로젝트, 전망데크를 하면서 저희에게 흥미로웠던 것은, 밤섬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 1920-30 년대에는 한 천명 정도 살던 주거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배를 만드는 일종의 향소부곡 같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uncharted territory, 'Zomia' 같은 곳이었죠. 이 곳이 68 년도에 여의도 가장자리 독을 만들기 위해서 100 일 동안 쌓던 '백일전투'를 위해 사라졌죠. 그런데, 이 섬이 다시 점점 자라났죠. 다시 부활하듯이. 마치

봉준호의 <괴물>처럼요. 지금은 사라졌을 당시 크기보다 6 배가 자라났어요. 근데 이것도 인간중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자연의 자연 생태계는 일종의 매우 수동적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부활해서 인간한테 '자연은 회복하는 거야.' 이런 식의 우리가 듣고 기분 좋은 메시지를 준다는 식의 서사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어떤 종말의 시나리오 아니면, 부활의, 둘 다 성서적인 극단의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밤섬이 자라나는 이유가 뭐냐면, 한강이 지금은 호수란 말이에요. 계속 댐이 양쪽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유속이 굉장히 느리니까 계속 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인간들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치수에만 포커스하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주변의 파급 효과에 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나비 효과처럼 막 겹쳐서 무슨 자동차 백중 충돌 같은 어떤 이런 도시를 만든 상황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며 또 멋있다 그러죠.

흥미롭게도 10 년쯤 전에 람사르 습지, 철새 도래지의 유네스코 같은 중요한 현장으로 지정되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걸 자연으로 인정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왕가누이 강이라든지, 뉴질랜드에 그 왕가누이 때문에 또 그런 법적지위를 인정받게 된 갠지스 강이라든지, 방글라데시의 강, 등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냥 인간과 자연, 주체와 객체, 양분화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 프로젝트는 그래저래 당인리까지 가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관한 얘기는 제가 굳이 길게 안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회는 아니니까요. 그저 우리가 다루는 이 두 프로젝트의 환경 자체가 엄청난 우연과 우발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맹점들, 대부분 토목, 엔지니어 마인드만으로 이곳을 봐 온 결과로 생겨난 거고요. 암튼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혼성적 환경으로 철새도 바라보고, 한쪽에서는 이 고물이 된 당인리 껍데기를 가지고, 문화적인 의미도 부여하면서 문화적인 생태계와 자연적인 생태계를 같이 바라보며 유지해 보려는 시도이고요.

마침 그 근처 홍대 문화 생태계는 너무 과열되어 강남 못지않게 된 상황이잖아요. 당선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도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어그램의 중심에는 매스스터디스이고 하나는 밤섬, 하나는 당인리 두 개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 모든 기관들이 있는 거고, 어찌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조율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기왕 돌봐야 한다면 공적인 행위로서 한 문화생태계 안에서의 다양한 입장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DDP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하게 했었구요. 포스트잇을 통해서요. 이 몇 달 후 서울 남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의 기회에서는 이 600 여 개의 포스트잇 제안들을 주제별로 다 정리해서 자료로 남겨놓을 수 있도록 했죠. 진지한 제안들에

상당히 놀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략, absence 에 관련된, DMZ 에 구상한 작업을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보여드린 일들은 다 저희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냥 수주한 일이든 현상설계를 통해 수주한 일도 있고요. 건축 실무를 하면서도 저희가 꾸준히, 이름을 매스스터디스라고 붙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돈 버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뭐 파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시발점은 어쩌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기획하게 되면서 부터였고요. 이걸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뜻깊었다고 하면, 어떤 문화생태계에서 뭐 굳이 제가 주제 넘게 돌본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 당시만해도 지금 정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대통령이 달랐고 좀 험악한 분위기였고, 북한 뭐 하면은 좀 훨씬 더 스릴 있고,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조금 눈치도 더 보면서 하다가, 다양한 만남들이 생겼죠. 그런데서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들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전시가 잘 끝나고 나서, 여러가지 기회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많이 거절하기도 했고요.

그중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아티스트 최재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꾸준히 그 당시부터 지뢰에 관한 스터디라든지, 환경에 관한 것들, 시게루 반 선생님 하고도 같이 작업을 하고, 여러가지를 하셨는데, DMZ 에 어떻게 보면 소위 부재, absence, 세 번째 전략인데,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70 년 동안 전혀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생겨났고, 그것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거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빌미로 해서 무얼 해 볼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두 나라가 본의 아니게 갈라진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DMZ 짱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서 몸바이 스튜디오라든지, 아티스트 이불 선생님이라든지, Olafur Eliasson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들 너무 기꺼이 참여해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승효상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그 분 아이디어도 이게 다 나무가 다 사라지는 재료, 이를테면 다 썩어 없어지는 재료고,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타워로 보여준게 아니고, 다 헐어서 썩고 있는 걸 보여줬죠.

Non-Anthropocentric 얘기를 했지만, 최재은 선생님은 여기서도 일종의 현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단순한, 아까 본 한복 입고 사진

찍는 Instagramable 한 관광지가 아니고, 시게루 반이 만든 떠 있는 길을 걸으면서 하루에 몇 명을 제한을 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rule 이 있어야 될 지를 다양한 참여자에게 물어봤죠. 저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언어가 없애자. 새 소리를 낼 수 있으면 해도 되고 대부분 묵언수행 같은 걸 해서 걷는 건 하자고 제안했죠. 패션디자이너 한 분은 동물의 눈에 안 띄는, 자연한테 겁을

안 주는 그런 카모플라주 같은 옷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Seed Bank 하고 Knowledge Bank, 두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살펴보니 주변의 제 2 땅굴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거의 그냥 있는 주어진 조건에 적절한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러면서 두 개 프로젝트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상과 이를 위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ongoing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재은 선생님한테 그냥 경의를 항상 표하고 싶은게, 지금도 판데믹 중에도 계속 동경에서 사시는데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주변을 다 3D 로 스캔을 하고 계시고, 들어갈 순 없는 땅인데 여기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일단 다큐멘테이션 하고 있고요.

대단한 작가들이 있어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훌륭한 분들이 구박받아가면서 치열하게 '당신 것 좀 이상한데요' 소리 듣고 다시 하게 하고, 그러다 탈락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찌 됐건 좋은 뜻을 가진 분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들을 어떤 방법이랄까? 앞에서 말한 몇 가지 모두 얘기하고, 방법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종류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재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 죽을 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그런 생각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저만 해도 베니스 일을 하면서 2013년부터 준비했는데 거의 뭐 이제 8년째 계속 경계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런 관심들이 관광으로 한번 엮어진 적이 있었고, 개성의 산업으로 엮어진 적이 있었고, 인프라가 연결이 되거나, 공예도성처럼 어떤 고고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도 중 하나로써 저희가 생각해온 이런 것도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DMZ 평화누리에서 친분이 있는 조각가 정현 선생님이 세워놓은 70 개의 조각입니다. 이것은 백남준 선생님이 2000 년도에,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셨더라고요. 그 영상이고요. <Good Morning, Mr. Orwell>처럼 몇 번 이렇게 인공위성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백남준 선생님도 88년에 Storefront 에서 그 DMZ 프로젝트에 관여하셨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들은 계속 돌본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기의 관심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p>오늘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 네 가지 사이트, 그리고 세 가지 우리가 제안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공간학생상의 주제에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별로 잃을게 없는 분들이구요. 그래서 좀 더 신선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해주시겠죠. 제가 mansplaining 하는 것 이제 다 끝나치고요 좋은, 많은 관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상당히 길어진 거 같아요. 온라인 질문도 있을 수 있고. Anthony, it was a long talk. Sorry about that. Did you hear? Did I make any sense to you?</p> <p>질문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주최측에서 하셔도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중에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p> <p>오늘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목숨 걸고 해 주신, 저는 백신 맞아서 마스크 안 한 겁니다. 2 미터 이상 떨어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요.</p>
<p>학생 질문:</p>	<p>하나의 사이트를 정해서 개념 같은 걸로 해도 괜찮을지? 설명해 주신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단일한 건축물이 아닌 Type 으로 제안을 해도 되는 건지?</p>
<p>MC:</p>	<p>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She is asking if it is required to propose a project with an actual site, a physical site, or could it be a prototypical site.</p> <p>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초 특정한 로컬 컨디션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판데믹 하고도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판데믹이 우리한테 주는 레슨 중에 하나는 판데믹은 자연현상 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협조해서 의도치 않게 나온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감당하는 나라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양상은 너무 판이하게 달라졌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거는 한 장소에서의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솔루션이나 뭔가를 돌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있되, 그게 꼭 사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슨 일은 디지털 월드에 제가 아직 감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오케이겠지만요. 근데 이거를 뭐 하나 던졌더니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런 proposal 은 사실 이런 학생공모 심사를 많이 해 봤는데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구체성도 없고 와 닿지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1 차때 얘기했지만, Non-Anthropocentric 이 차라리 나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길고양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도시에서의 생태계이니까...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오히려 소박하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솔깃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소위 universality,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지금은 먹히는 시대도 아닌 거 같고 그런 거죠. 저는 영화로 치면 미나리 같은 그런 작업을 보고 싶은 게 "이민사", 이런 거 너무 뻘하지만, 굉장히 자기 체험으로 구체적인 디테일 들에서 다 넘어간 거잖아요. 물론 연기들도 특별히</p>

훌륭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balance 을 가지려고 Anthony Fontenot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선생님도 학자로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식들을 모으면서, 이렇게 일들을 글도 쓰시고 하지만요. Local knowledge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되, 사이트는 그래서 꼭 피지컬한 Site 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뭐가 위태로우냐? 본인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나?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 달라고 했죠. 거기에 따라서 전개가 될 거 같아요. 답변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거 우리 고민 많이 한 거였어요.

오늘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고,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제안이 좀 있고 하니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또 피드백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비디오를 올려 놓으면 비디오에서는 좀 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포맷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게 뭐 paperless 도 중요하고 많이 요즘 공공 현상 설계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A3 로 14 장을 만들었을거예요. 최대. 그것도 14 장이 맥시멈이예요. 거의 문짝 만하게 두 줄씩, two columns 으로 해서 붙이면 딱 되는 그런 포맷으로 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14 장의 페이지 안에다 왜냐면은 이젠 horizontal 한 포맷으로 대개 컴퓨터로 우리가 다 두 사람이 볼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취업할 때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제발 수직 포맷으로 PDF 보내면 거기서 이미 점수 나갑니다.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 돌려서 세로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A3 사이즈로 프린트할 거고, 컴퓨터 안에서 14 장 최대 쓸 거고, 4 단계로 방법을 보여 달라고 했으니까 1 번 뭐 한두 장, 2 번 그건 맘대로 배분하시면 되고, 두 줄, two columns 으로 12345678 이렇게 해서 붙여 놔도 이쁘게. 그것도 뭐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런 건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해요. 물론 포맷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내용이 중요한 거 같아요. 막 이렇게 화려한 그림 이런 거 보다는 좀 precise 하게 자기 point 하고 아이디어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림 잘 그리는 건 좀... 저는 이거 물론 그림 잘 그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디자인인데 좀 더 큰 얘기를 해 주시면, 스케치로 해도 돼요. 손 좋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석의 프레젠테이션 영문 버전은 SCI-Arc Lecture 와 유사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Please refer to Minsuk Cho's SCI-Arc lecture, which is relevant to, and, in part, contains his presentation for the 2nd Briefing of the Theme.

SCI-Arc Lecture: <https://youtu.be/wx0xqH31BbY>